

들어가는 말

우리는 겸손한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치 또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자리잡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29절에 기록되었듯이 자신을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겸손을 성육신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겸손을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여인들을 둘러싼 분쟁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뒤숭숭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겸손을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각종 기적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물위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오병이어로 5천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느냐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사건, 즉 성경에 기록된 성탄을 있는 그대로 믿을수만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기적들을 믿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기만 하신 분이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뭐든 다 받아 주는 사랑의 신'이라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하늘의 영광, 흠없는 평판을 포기 하셨습니다.

맺는 말

올 한해 동안 혹시 자존심 상하는 일, 또 여러분의 평판에 금이 가는 일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우리를 낮추면 주께서 그분의 때에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 충만한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질문

1.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심화해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가 가장 크게 다가오나요?
2. 올 한 해 동안 자존심이 상했던 일들이 있었나요? 어떻게 반응(또는 극복)하셨는지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3. 최근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일예배(한어)	수	7:00PM / 본 당
수요일예배(영어)	수	7:00PM / 안디옥
어와나(영어/유치부)	수	7:00PM / 나사렛
어와나(유년부)	수	7:00PM / 베들레헴
Youth 모임	금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모임	금	7:00PM / 안디옥
한글학교	금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한어)	화-토	6:00AM / 본 당
새벽예배(영어)	화-토	6:00AM / N-117

주일예배

장년 한어예배 1부	7:40AM / 본 당
장년 영어예배 2부	9:20AM / 본 당
장년 한어예배 3부	11:00AM / 본 당
사랑부 예배 (장애인)	1:20PM / 베들레헴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9:30AM / 베들레헴
	11:00AM / 베들레헴
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담임목사 송 경 원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데이커어 253.535.9435 | 기도원 253.847.2250



주일예배 1부: 오전 7:40, 3부: 오전 11:00

- * 경배와찬양 1부: 남궁곤 목사 / 3부: 주일 3부 찬양팀
- 대표기도 1부: 순복바셀로나 집사 / 3부: 채병관 집사
- 봉헌찬양 1부: 찬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부: 찬양대 “더 사랑합니다”
- 공동체소식 송경원 목사
- * 성경말씀 빌립보서 2:5-11
- 설교제목 “성육신의 의미”
- 말씀선포 송경원 목사
- * 응답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 축도 송경원 목사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수요성령예배

- 찬양과기도 수요찬양팀
- 대표기도 철옥핏셔 집사
- 제목 “함께하시는 하나님”
- 성경말씀 마태복음 1:18-25
- 말씀선포 정주영 목사

예배위원

- 이 1부: 순복바셀로나 집사
- 번 3부: 채병관 집사
- 주 수요: 철옥핏셔 집사
- 다 1부: 명숙헨리 집사
- 음 3부: 채병욱 집사
- 주 수요: 연합예배

드러진 예물

공동체소식

1.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사역자를 만나, 교회 등록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며 대림절(12/24까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블레싱스쿨(지난 10주 동안)과 타코마교회연합 성탄축하예배(지난 주일)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선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 12월 모임 안내
 - (1) 선교회 월례회: 12/17(주일) 3부예배 후
 - (2) 수요연합예배: 12/20(수), 강사-Emile Masabarakiza 목사 (잠비아)
 - (3) 한어부 소망회 모임: 12/21(목) 오전 11시, 안디옥 성전
 - (4) 목자/목녀 모임: 12/23(토) 오전 7:30, 성가대실
 - (5) 성탄주일연합예배: 12/24(주일) 오전 10:30, 본당
5. 사무처리회: 12/10(오늘) 오후 1:30, 안건-2023년 결산안
6. 2023년 새가족 환영회: 12/10(오늘) 오후 4시, 안디옥 성전. 대상: 2023년 새가족 모두
7. 라티 문 성탄 선교헌금 (Lottie Moon Christmas Offering)은 남침례교 해외선교부의 선교사역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로비에 있는 "라티 문 성탄 선교헌금 봉투"에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8. 성탄절 헌화 금액의 절반을 라티 문 성탄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20/화분, 로비에서 신청).
9.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인 순회접수: 12/17(주일) 오전 9시- 오후 1시, 교회 로비
 - ※ 대상: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 준비서류: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10. 침례식: 12/24(주일) 오전 10:30 (성탄주일 연합예배)
11. M52 구제 신청: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를 목장 목자와 담당 사역자에게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12. 2024년 집사 임명 편지를 후보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기도하신 뒤, 수락 여부를 작성하여 교회 사무실로 12/27(수)까지 제출하거나 교회로 우편 발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13. Youth 겨울 수련회: 12/28-30(목-토), Lake Retreat (문의: James 전도사)
 - ※ 회비: \$120 (12/11-27), 형제 할인 \$10 (형제당)
14. 2024 봄학기 한글학교: 수업기간-1/5(금)~5/31(금), 대상-4세~성인
 - ※ 등록마감-12/31(주일)까지, 수업료-\$200, 등록-교회 홈페이지, 문의-영숙고령 집사
15. 2024 여름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설명회: 12/31(주일) 오후 12:30, 장소-안디옥

행정사역

1. 새벽예배: 안전을 위하여, 본당 건물을 오전 5:30부터 오픈합니다.
2. 목회자 동정: 송경원 담임목사 휴가(12/12-23)

소천: 신화숙 권사(정경일 집사 모친) 12/7 소천 (한국시간)

교우동정

중보: Wilbur Moore, Raymond Dumas, Earl Dungey, Conard Goering, Mack Horne, Rick Dollar, William Ellis, Ken Adkins, Clarence Turner, 숙자나이트, 박지영, 안순행, Angela Prater, 정이스트맨, 엄기추, 오세규, 정애리오스

24시간 기도 핫라인: 남궁곤 목사 (253-753-8310), 초원 담당 목사 및 목장 목자/목녀